

백인섭의 작은 거산 설악산 이야기: 설악산 범봉 개척등반기

글, 사진 백인섭(산악인, 요텔산악회)

개척일: 1967.5.27-6.2

개척자: 백인섭, 유충길, 장승복 (요텔산악회)

설악에서 가장 멋진 암봉 : 범봉



< 운해 위에 살짝 모습을 드러낸 범봉 >

<발굴> 가장 멋진 것은 가장 깊고 먼 곳에

내가 산에 미쳐서 산을 찾던 시절엔 틈만 나면 또는 무슨 핑계거리만 생기면 나는 산을 찾았다. 어쩌다가 그걸 걸으면 당장 벼락이라도 맞아 죽을 것처럼 안절부절 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예외 없이 산을 찾았다. 어차피 인생사는 선택이고 그 선택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내게는 언제나 산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초창기의 내게는 도봉산이 산의 전부였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도봉산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곤 했는데 항상 무언가가 조금 모자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바로 등반규모였다. 도봉산에서는 어떤 코스를 잡든지 당일치기로 봉우리까지 올랐다가 내려 올 수 있기 때문에 등반규모 차원에서 나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금방 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바로 설악산이

었다. 물론 높이가 도봉산의 갑절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시 설악을 등반하려면 짧아도 일주일 정도고 보통은 열흘 정도 길게는 2주 정도를 거칠고 험한 산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규모의 등반이었고 무엇보다도 탐험 적이고 모험적인 요소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방학 때는 물론이고 징검다리까지 끼어 있어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공부도 일이고 다 제치고 무조건 설악으로 들어갔다. 그 덕에 남들보다 갑절 걸려 대학을 졸업하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전혀 후회는 없었다.

60년대 초반의 설악산 등반은 봉우리나 벽 등반이나 암능 등반이 아니라 주로 계곡 등반 이었고 드물게 능 중주 등반의 형태였다. 당시에는 그 길들에 계곡을 가로 지르는 철다리나 바위 절벽을 오르고 내리는 철사다리 또는 고정 밧줄 같은 것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산장이나 대피소 같은 것들도 전혀 없이 원래의 자연 그대로였다. 따라서 등반기간 동안의 의식주를 위한 모든 장비와 식량에다가 등반 장비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지고 다녀야 했으며 반면에 식량이나 장비 등은 매우 원시적이라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계곡을 타고 오르고 내리는 것도 꽤나 힘들고 위험한 등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주를 해내려면 최소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가 소요됐고 그것도 40~50Kg 정도의 무거운 짐을 메고 해내야 했었다.

암벽 등반으로서는 여름방학 원정 등반 시 설악동에 짐을 풀고 울산바위 암벽을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왜냐하면 그 것 만이 당시 이 땅의 산꾼들에게 친숙한 서울 근교의 선인봉과 인수봉 바위처럼 장년기의 견고한 화강암이었고 무엇보다 무거운 원정 짐을 설악동에 남겨두고 서울 근교 산처럼 당일치기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도 설악등반이 끝날 때마다 울산바위를 찾아 암벽등반을 즐겼고 새로운 길도 2개 개척했었다. 그러나 울산바위에서의 암벽등반은 늘 무언가가 부족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로 봉우리의 형상 때문이었다. 거기엔 고고하게 홀로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설악동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바위 봉들은 노년기 바위로서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아예 암벽등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토왕성 폭포나 대승 폭포 같은 것들도 그저 바라만 보면서 경탄하는 대상이었을 뿐 등반대상으로서는 생각도 않고 있었다. 더구나 범봉 같은 멋진 독립 암봉이 그것도 처녀봉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석주길 같은 날카로운 멋진 암능(나이프 릿지)들이 우리의 산에서 태곳적 모습으로 우리 등반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토록 멋진 것들이 등반대상이 되기엔커녕 그 수려한 모습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채 외설악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왜냐 하면 외설악을 관통하는 등반길이라고는 오직 천불동 계곡 길 밖에 없었고 거기에 들어서면 양쪽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해서 시야가 딱 막혀버려 외설악의 그 화려한 암봉과 암능들은 그 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산 산꾼은 제일 중요한 등반 목적이 산의 아름다움과 태초의 신비와 순수함을 찾아 즐기려는 것이었기에 어딜 가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특출한 것들을 찾으려 애썼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1966년 어느 여름날 무거운 원정 짐을 메고 힘겹게 소청봉에서 천불동으로 내려서는 가파른 내리막 길에서였다. 길고 무거운 구름이 외설악을 온통 뒤 덮어 구름의 바다가 아니라 구름의 설원을 이루고 있었다. 내게 눈썰매가 있고 그걸 끌어줄 순록이 있다면 그걸 타고 그 위를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속에서 문득 모습을 드러내곤 다시 금방 운해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외설악의 암봉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 시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흡사 다도해의 경치 같았다. 모든 것들은 구름 속에 파묻히고 오직 높은 암봉들만 구름을 뚫고 뾰족 뾰족 여기저기에서 나락 들락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유별난 암봉 하나가 있는 듯싶었다. 나는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재빨리 근처에서 시야가 보다 잘 트이는 지점을 찾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정말로 납달리 수려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는 독립 암봉 한 개가 운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리곤 금방 다시 사라졌다.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공용능 중간쯤에는 여러 개의 바위봉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납게 솟아 있었다.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홀로 외설악 쪽에 우뚝 솟아 외설악의 수많은 바위봉들을 거느리면서 그 위에 왕중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매혹적이었다. 순간 바로 저기가 진짜 외설악이고 저 바위 봉이 바로 내가 찾는 외설악 최고의 멋진 암봉이며 따라서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암봉이라는 생각에 설렘과 탄성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다. 비록 먼발치에서 얼핏 보았지만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느끼기에는 족한 그런 장면이었기에 그 모습은 내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그것은 북한산 인수봉을 빼 닮은 모습이었다. 그 윤곽이 날카롭게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둥그런 형상으로 보아 바위 질도 틀림없이 장년기 화강암으로서 암벽등반에 이상적일 걸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찾아올라 보아야겠다는 등반욕구가 강하게 일었다. 그건 마치 늘 보아오던 도봉산 선인봉 전면 벽의 깨끗한 공

간 속에서 어느 날 문득 허리길이나 표범길을 찾아내었을 때의 그 기분과 같았다. 다시 짐을 지고 하산을 시작하자 더 이상은 그 암봉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설악동에 도착할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그쪽을 살펴봐도 그 암봉은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소청 내리막길에서 나무 사이로 잠시 동안만 내게 그 매력적 모습을 훑듯 보여주고는 수줍어 다시 설악산 깊은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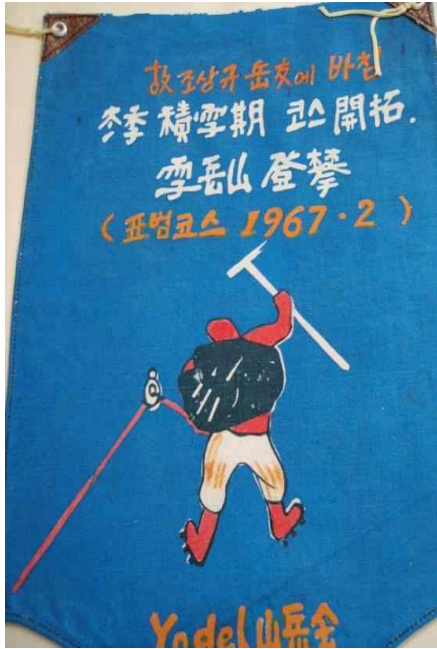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암봉을 찾아 내 몸을 비벼보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외설악의 가장 깊은 속에 숨겨져 있어 그 근처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접근로를 우선 개척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어렵게 외설악 지역 지도를 모두 구했다. 당시 일반에게 판매되는 지도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바위 봉이나 절벽을 판별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렵게 2만5천분의 1 지도를 구했다.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대충 그 암봉의 위치를 잡아냈고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계곡 길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 계곡은 비선대와 귀면암 사이에서 화채봉 반대쪽 즉 서쪽으로 뻗은 두 번째 계곡으로 위치상으로는 외설악의 심장부를 피 뚫고 공룡능에 이르는 계곡이고 등고선 상으로는 매우 좁고 경사가 급한 계곡임을 알 수 있었다. 계곡 상단에서 공용능이 시작되기 좀 전에 오른쪽으로 오르면 그 봉우리 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 등반 때 설악동 원주민인 약초꾼들과 사냥꾼들에게 그 계곡에 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거기는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는 설악에서 가장 험한 계곡이고 하도 바위가 많아 자른바위골이라고 부르며 당시 설악산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실탄 한 트럭 (왜냐하면 수많은 사냥꾼들로부터 실탄 한 추력 분을 얻어맞고도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 부처진 별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무서운 곶은 물론 어찌면 호랑이까지도 바로 그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구동성 이었다. 그곳으로 등반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할 것이라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유혹과 도전이 느껴졌다. 거기야 말로 태초의 순수함과 신비가 존재하며 내 혼신을 다 받쳐야 될까 말까 하는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도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 계곡으로 오를 것을 결심했다. 우선 본격 등반에 앞서 정찰을 해 보기로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없는 험한 바위협곡을 무거운 짐까지 지고 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계곡 바닥으로 물줄기를 따라 타고 오르는 수밖에 없다. 가다가 바위덩어리에 막히면 그걸 타고 올라야 하고 때론 계곡 양쪽 바위절벽을 타고 올라야 되는데 계곡바위는 습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고 자칫 깊은 소로 빠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무겁고 커다란 짐을 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동계 적설기에 오르는 것이었다. 계곡물이 얼어붙으면 깊은 물이나 급류에 휩쓸리는 위험이 없어지고 더구나 그 위로 편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계곡에 눈이 많이 쌓이면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쌓인 눈으로 평평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해 겨울을 기다렸다. 그리고 몇 차례의 폭설이 내려주길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자른바위골 제1차 정찰등반>

일시: 1967.2

대원: 백인섭, 강길건, 하양도, 김진성



- 준비 : 동계 적설기 등반을 위한 의 식 주 그리고 등반장비

동계 적설기 자준바위굴 탐험등반을 위해서 나는 팀을 조직했다. 나 그리고 나의 동료인 강길건과 하양도 그리고 후배인 김진성 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등반장비들을 준비했다. 각자 동계등반을 위한 방한 의류, 신발로서 군화 위에 덧신 형태로 착용하는 고무장화(당시 생선장수 신발이라 불렀음), 야영장비로서 닭털침낭과 내피 및 외피, 에어메트레스, 그리고 군용 A 천막과 휘발유 뼈너 및 취사도구, 등을 남대문 시장 군용품가게에서 구입하고 그리고 8발짜리 아이젠과 픽켈을 남대문 시장 마포 할아버지한테서 구입하고 그리고 적설기 필수 장비로서 눈 위를 걸을 수 있는 미제 군용 라켓형 설피도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했다.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고 자일 등 등반장비를 갖추니 각자 짐 무게가 무려 60 Kg정도가 되어 혼자서는 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 짐을 지고는 평지 길도 걷기가 매우 힘겨운 상태인데 더구나 험한 자준바위굴 계곡을 어찌 오르고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짐의 무게를 40~50KG 정도로 줄여야 했다. 클라이밍 장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 자연스럽게 대상은 야영장비와 취사장비와 식량이 되었다. 천막 등 주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비박만 하기로 그리고 연료와 뼈너 그리고 각종 취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모닥불과 군용 함고만을 사용하기로 그리고 식량도 밥 대신 떡국만을 먹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각자 짐 무게를 10Kg 이상씩 줄일 수가 있었다.

- 연습훈련등반 : 동계 적설기 권금성 직벽 등반

다음해 겨울(1967.2)에 기다리던 폭설이 여러 차례 왔다. 우리는 기다리던 자준바위굴 탐험등반을 위해서 마장동으로 가서 여인숙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새벽 속초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저녁에 속초에 도착해서 여관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설악동 행 버스를 타고 설악동에 도착하니 그 동안 누적된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설악동의 집들이 눈 속에 모두 묻혀 있었다. 사람들은 좁다란 눈의 협곡을 만들어 이웃과 겨우 왕래를 할 정도였다. 따라서 울퉁불퉁한 설악동 계곡이 쌓인 눈으로 평평해졌다. 바로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 이었다.

미지의 험한 자준바위굴 정찰등반에 앞서 우리는 생전처음 사용하는 라켓형 설피 사용기술과 픽켈로 스텝 컷팅하면서 오르는 기술과 8발짜리 아이젠 사용기술 그리고 어렵게 구한 일제 앵글형 아이스하켄 사용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하루 동안 설악동에서 훈련하기로 하였다. 대상으로 권금성 직벽을 택해서 올랐다. 왜냐하면 권금성 직벽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의 잡목지대가 폭설에 덮혀서 아주 평탄한 설사면을 이루고 있어 라켓형 설피를 신고 뺨셀 하며 오르는 훈련에 적합했고 중단부 이상에서는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여기저기에 빙벽 또는 설벽이 형성되어 있어 킷켈과 아이젠을 사용해서 설벽 내지 빙벽 등반을 연습하기에 아주 적합했기 때문이다.



<권금성 직벽 하단부 설벽>





<권금성 상단부 빙벽>

우리는 간단하게 클라이밍 장비만 챙겨서 지고 난생처음으로 미군용 라켓형 설피를 신고 손에는 픽켈을 들고 평탄해진 설악동 계곡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가로 질러 권금성 직벽으로 접근 할 수가 있었다. 집을 덮을 정도의 폭설이 없었으면 잡목들 때문에 등반이 어렵도 없는 지형인데 그 모든 잡목들과 바위덩이들이 모두 눈 속에 파묻혀 평평해진 덕분이었다. 보통 신발의 몇 갑절 크기의 라켓 설피를 양발바닥에 매달고 걸으려니 처음엔 매우 불편했다. 다리를 넓게 벌려야 하고 걸을 때도 넓게 걸어야 했다. 처음엔 그게 잘 되질 않아 서 있을 때는 두 설피가 겹치고 걸을 때는 두 설피가 자꾸 서로 걸려 넘어지곤 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금방 설피 신고 걷는 요령을 터득했고 그것에 익숙해졌다.

설사면을 좀 오르니 경사가 급해지면서 또한 쌓인 눈이 점점 단단해 지면서 설피가 먹히지 않고 자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래서 설피를 벗고 대신 8발짜리 국산 아이젠을 부착하고 걸으니 아이젠 발톱이 사면에 저절로 콕콕 박히면서 쉽게 오를 수가 있었다. 흡사 만년설 지대의 설사면처럼 기막힌 설사면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한 참을 올라 중턱쯤에 이르니 사면이 가팔라지면서 눈과 얼음이 섞인 벽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각자 안자이랭하고 선등자인 내가 픽켈로 스텝 컷팅을 해가면서 올랐다. 그리고 경사가 급해서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를 찾아서 스링을 걸고 확보를 했고 적절한 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앵글형 아이스하켄을 얼음벽에 박아 확보한 후 빌레이를 받으며 후등자가 오르고 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리곤 다시 그리로 하강했다. 이 등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동계 설벽 및 빙벽 등반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설피 사용법, 아이젠 사용법, 픽켈 사용법 등 필요한 동계적설기 등반기술을 익힐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권금성 직벽에서의 우리의 훈련등반 자체도 어쩌면 권금성 직벽 초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 본 등반 : 동계 적설기 자른바위골 정찰등반 : 실패

다음날 아침 일찍 설악동을 출발해서 비선대를 지나 설악골을 지나 자른바위골까지 계곡 한 가운데로 설피를 신고 아주 편하게 오를 수가 있었다. 계곡 바닥의 울퉁불퉁한 바위덩이들이 모두 눈 속에 묻혀서 평평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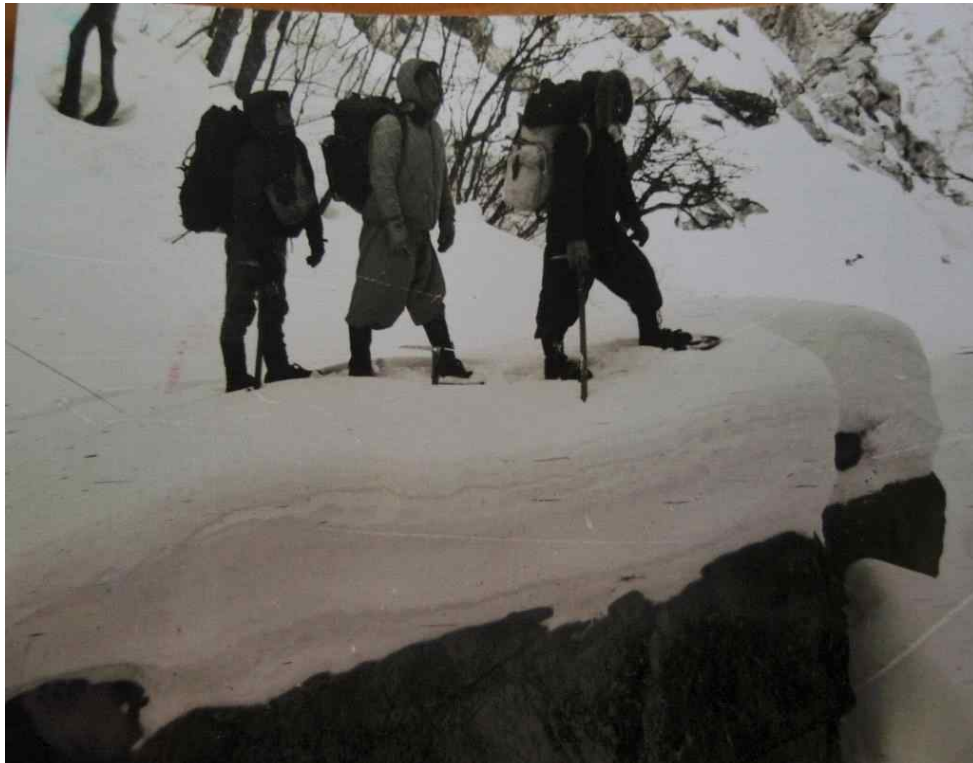
그러나 무거운 짐과 그리고 커다란 설피를 신고 걸어야 했기 때문에 걸음 속도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늦은 무렵에 우리는 자른바위굴 초입에 도달했다. 조금 이르지만 거기서 야영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험준한 자른바위굴 등반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비박지를 찾는데 마침 커다란 바위 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열린 굴 형태로 형성되어 있었고 바닥도 눈 한 톨 없이 바짝 말라있었고 누울 수 있게 평평했다. 굴 입구만 눈으로 적당히 막아주면 아주 아늑한 동굴집이 될 듯싶었다. 우리는 바로 옆에서 쌓인 눈을 벽돌처럼 떼 내어 굴 앞면에 벽을 쌓았다. 금방 기막힌 설동 한 채가 만들어졌다. 난생처음 지어본 설동이였다. 그 속에 들어가니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아늑했다. 설동 밖에 모닥불을 피우고 함고로 눈을 녹여 떡국을 끓여 먹은 후 함고 커피(함고와 모닥불에 끓이는 커피)를 한 그릇씩(컵이 아니라 밥그릇에 가득히 담은 커피) 마시고는 각자 자신의 잠자리를 만들었다. 잠자리 만들기에서 가장 힘든 일은 군용 에어메트레스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는 일이었다. 숨이 턱에 차고 얼굴에 시뻘건 핏대가 서야 비로소 매트가 탱탱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내피와 외피까지 갖춘 군용 닭털침낭을 펴고 그리고 모두 그 속으로 누에처럼 기어들어갔다. 배고프고 바닥이 배기고 그리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처량한 나그네의 잠자리가 아니라 아주 폭신하고 편안하고 포근한 그런 호사스러운 잠자리였다.



<자른바위굴 초입> 계곡 초입에 설동을 짓고 하루 밤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드디어 자른바위굴의 좁은 입구로 들어섰다. 몇 백 미터를 오르니 계곡이 폭포 빙벽으로 딱 막혀 있었다. 한 10 미터 정도의 수직 빙벽 위로 다시 좁은 바위계곡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마치 거대한 성체의 관문 같았다. 그제야 사람들이 왜 자른바위굴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를 이해했다. 자른바위굴은 그 입구부터가 일반 사람들은 들어설 수 없도록 수직의 폭포로 가로 막히고 그 위로 좁은 바위협곡으로 들어서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런 계곡이었다.

그런 계곡을 오른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어려운 암벽 또는 빙벽등반으로서 더구나 무거운 원정 짐을 지고 그것도 미지의 개척 등반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자준바위굴 초입> 적설량이 엄청나서 라켓형 설피를 신어야 했다.

어쨌거나 그런 수직빙벽을 오르려면 하켄을 연달아 설치하면서 오르는 인공등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10개 정도의 아이스하켄은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수직빙벽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저 확보용으로 준비한 3개뿐이니 자준바위굴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대신 설악골 쪽으로라도 좀 올라 볼 작정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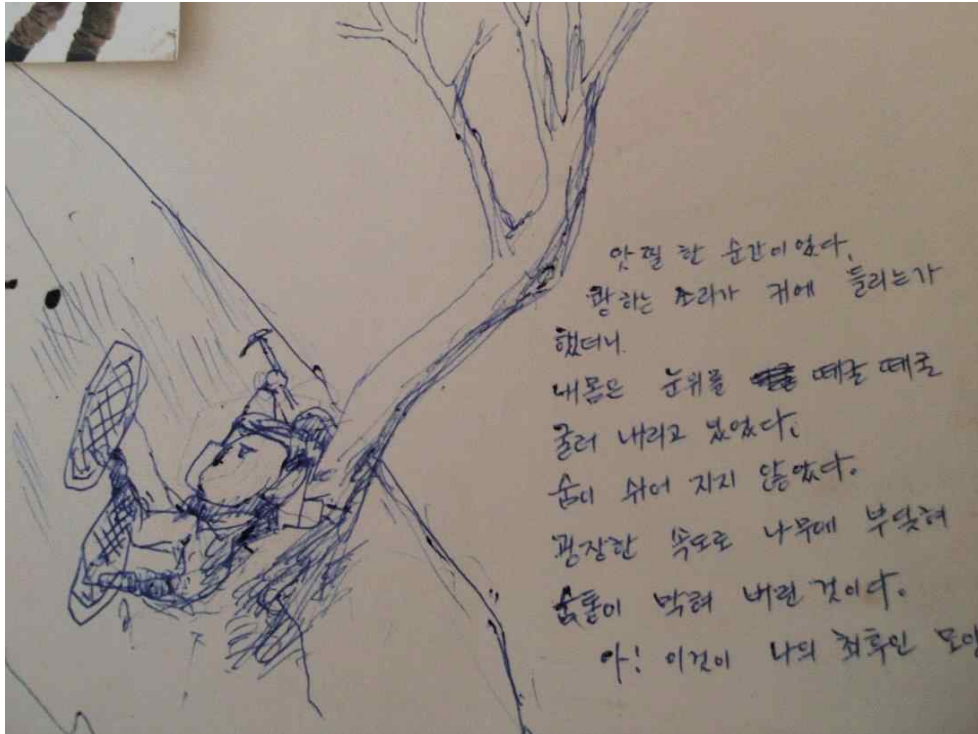
는 설악골 쪽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조금 오르자 사면의 경사가 급해지고 눈이 단단해서 설피 사용이 불가능해져 설피를 벗어 등에 지고 올랐다. 급사면에는 여기저기 눈덩이가 형성되어 매달려 있었다. 그 중 한 개를 잡고 오르려고 붙잡는 순간 그 눈덩이가 떨어져 내렸다. 놀라서 눈덩이를 잡으려 했지만 순식간에 나를 밀쳐내고는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내렸다. 엄청난 무게였다. 나는 황급하게 낙석하고 외쳤다. 내 뒤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대원들이 눈덩이를 피하도록. 다행히도 눈덩이가 우리 대원들을 피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쳐 박살이 났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눈덩이가 돌덩이만큼이나 무겁고 단단해서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능선에 오르니 엄청나게 눈이 쌓여 있었고 다져지지 않은 상태라 걸을 수가 없어 다시 설피를 신어야 했다. 설피를 신고 능선을 넘어서 조금 내려서니 경사가 다시 급해져서 설피 신고 걸기가 여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대충 이부 능선쯤에서 발에 고정되어 있는 설피를 꺾치게 해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다. 바로 썰매 질을 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권 픽켈로 꼬챙이 질을 하면서 설사면에 쌓인 눈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내가 밀어내는 눈더미가 빠르게 밑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내 설피 썰매도 쏠살처럼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빙판 위에 덮여 있던 눈을 내가 쓸고 내려가는 바람에 밀려 내리는 눈이 어느 순간에 눈사태로 변하면서 눈이 급사면으로 쏟아져 내리고 빙판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설악골로 넘어서기 위해서> 자른바위굴 폭포를 우회하기 위해서 설악골 쪽 능선으로 오름



< 당시 기록 > 능선에서 설악골 쪽으로 하강 중 슬립.

나는 대충 100 미터 이상을 정말 쏘 살처럼 눈 덮힌 빙판 위를 미끄러져 내렸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뜻밖의 상황이었다. 밑에 깔고 앉은 설피에 내 두 발이 매여 고정되어 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 바람에 나는 꼼짝달짝 할 수없이 반 누운 자세로 마치 경기용 눈썰매를 탄 것처럼 미끄러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계곡 경치가 마치 달리는 열차의 창 밖 풍경처럼 빠르게 내 양쪽을 스치며 지나갔다. 다행히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한 참을 거의 직선으로 미끄러져 내리다가 산 중턱쯤에서 방향이 저절로 틀어졌다. 그러자 계곡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나는 바로 그 나무를 향해서 쏘살처럼 돌진하고 있었다. 여전히 내 몸과 발이 꼼짝달짝할 수 없게 묶여있어 피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은 그 나무에 팽 하고 부딪치면서 내 몸은 공중에 떠서 날랐다. 나무에 가슴을 부딪치는 바람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나무에 부딪치면서 등에 진 무거운 기스렁이 내 몸에서 벗겨져 나갔고 그리고 두발에 고정되어 있던 설피도 벗겨져 날아가 버렸고 손에 잡고 있던 픽켈도 어디론가 날라가 버렸다. 그 덕에 내 몸은 설사면을 때굴때굴 곤두박질치면서 한참을 구르다가 깊은 눈 속에 쳐 박히면서 멎었다. 다행스럽게도 때굴때굴 구른 바람에 막힌 숨이 저절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눈 속에 쳐 박혀 누운 채 내 몸을 점검해 보았다. 다행히 피는 보이지 않았고 사지도 멸정하게 붙어 있었고 쭈시거나 아픈 곳도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산위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향을 질렀다. 설피를 깔고 미끄럼타지 말라고, 내 뒤를 따르던 대원 모두가 나처럼 미끄러져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했다. 한 참 후에 대원들이 눈을 헤치며 걸어서 내려 왔다. 내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없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썰매타기를 중지하고 설피를 벗고 걸어 내려 온 것이었다. 나는 여기저기 눈 속에 묻혀 있는 픽켈과 설피와 그리고 배낭을 찾아서 다시 짊어지고 하산을 시작했다. 설악골로 내려섰지만 상부로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설악동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로서 자근바위골 정찰등반은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자근바위골은 시작부터가 아주 험상궂어 겨울보다는 차라리 봄철에 본격적인 암벽등반으로 탐험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는 또 한 번 죽다 살아난 것 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봉산 산신령이 아니라 설악산 신령께서 날 살려서 돌려보내 준 것이다. 다음에 보다 더 공부하고 다시 오라고. 아마도 도봉산 신령과 설악산 신령 그 분들은 형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 제2차 자른바위골 탐험 및 범봉 초등> 정찰과 등정을 동시에.

개척일: 1967.5.27-6.2

개척자: 백인섭, 유충길, 장승복 (요텔산악회)

1967년 봄에 나는 클럽에서 힘도 좋고 등반기술도 좋은 정예 클라머인 유충길과 장승복과 함께 단출하면서도 막강한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자른바위골 계곡탐험등반을 재 시도했다. 바로 3달 전 동계 적설기에 정찰탐험을 하려다 실패하고 물러선 지 3달 만이었다. 이번에는 암벽등반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고 팀도 소수 정예로 한 개의 자일과티라서 암벽등반위주로 계곡을 탐험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종 목적은 그 아름다운 독립 봉을 찾아서 그 봉우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 일주일 치 식량과 비박장비 그리고 클라이밍 장비로서 자일 2동과 적당량의 하켄과 카라비나 그리고 햄머와 장글을 해쳐 나갈 때 사용할 나다(칼) 등으로 무장한 우리의 짐은 사람당 한 40-50 Kg 정도였다. 물론 톱을 서야 하는 나는 다소 가볍게 짐을 지고 우리 모두는 비장한 각오로 등반을 시작했다.

<첫째 날: 5.28 안개> 본격 등반에 앞서서 울산바위에서 몸 풀기.

본격 등반에 앞서 몸도 풀 겸 그리고 새로운 암벽코스도 하나 개척할 겸해서 우리는 울산바위를 향했다. 계조암에 당도해서 흔들바위를 흔들어보고 마침 흔들바위에 말 엉덩이처럼 불룩한 사면이 있어 그 위를 두 팔로만 짚어 누르면서 말 타기 자세로 오르는 어려운 동작을 시도해 보았다. 얼마 전 도봉산 선인봉 십자로 직상코스를 하던 중에 말 엉덩이 같이 불룩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는데 그걸 박쥐코스를 선우증옥과 함께 개척했다는 미국인 등산가 이본 퀴나드가 양팔로 넓게 잡아 짚어 누르면서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해 보았지만 당시 어림도 없었다. 분하고 어긋했는데 마침 그 비슷한 걸 흔들바위에서 찾았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나. 나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역시 어림도 없었다. 그런데 충길이가 그걸 해 내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속으로 경탄했다. “야 이놈 봐라 이리 어려운 것을 해 내다니 나도 못하는 걸” 하고 생각했다. 내가 아직도 모자란다는 걸 절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길러냈다는 걸로 위로하면서 나는 바로 울산바위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올랐다. 작년에 개척했던 길 근처에서 적당한 곳을 골라 새로운 길 한 개를 개척할 작정이었는데 안개가 점점 짙어 지면서 울산바위 발치에서는 위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어져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로운 길 개척은 포기하고 그냥 몸만 풀기 위해서 작년에 개척한 길로 울산바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둘째 날: 5.29 맑음> 자른바위골 하단부 등반

12시경 비선대를 지나 30분 만에 표범골(자른바위골)입구에 닿았다. 이골은 지난 2월 동계 정찰을 하려다 실패하고 설악골로 넘어가다가 죽음 일보 전까지 갔었던 곳이다. 이제부터는 완전 미지의 산이 펼쳐진다. 길도 없고 아무런 인간의 흔적도 없다. 드높은 바위 봉들과 깊은 계곡과 장글과 무서운 짐승 그리고 낮에는 태양 밤에는 공포의 암흑과 바람이 있을 뿐이다. 그 맨 위 어디쯤엔가 바로 내가 찾는 그 멋진 바위 봉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지도로 보면 수평거리는 짧지만 경사가 급하고 산세가 하도 험준해서 그 봉의 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만 2일을 예상했다.

지난겨울 정찰 시 우리의 길을 막아섰던 첫째 폭포에 도착했다. 그 때와는 달리 빙벽대신에 폭포가 되었고 양쪽의 바위 절벽들에도 여기 저기 작은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다. 잘 살펴보니 우측으로 잡목 벽을 타고 오르면 폭포 위를 끼고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밴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로 등로를 잡고 올랐다. 우리 모두는 바위타기라면 걷는 것 보다 쉬울 정도로 이력이 붙어있는 산꾼들이라 첫 번째 폭포 절벽은 무거운 짐을 진채로 안자이행하고 그리 어렵지 않게 우측으로 타고 올랐다. 다만 폭포상단에서 한 4미터 정도 트레파스 구간에서 등에 진 짐이 너무 부담스러워 짐을 풀고 건너서 케이블을 설치해서 짐을 운반했다. 도르래를 타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우리들 기스링 밑으로 폭포가 마치 화가 난 듯이 한층 요란하게 소리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제1폭을 통과하니 진짜 자른바위굴이 시작되었다. 조금 전진하니 이상하게도 계곡의 물이 말라버린다. 골짜기는 메마른지 오래된 듯하고 양쪽 바위절벽 위에서 떨어진 바위덩이와 돌덩이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었다. 갈수록 계곡 양 옆으로는 더욱 높은 바위절벽들이 험하게 치솟는다. 조금 더 전진하니 계곡에 물이 다시 흐른다. 한 구비 돌아서니 제2폭포가 나타난다.

7미터 정도의 암벽이 우리 앞을 가로 막는다. 우리 중 가장 체력이 좋아 힘이 좋은 승복이가 먼저 옆에 나 있는 수직 크랙으로 대형 기스링을 진채로 타고 올랐다. 놀라운 힘이다. 난 도저히 자신이 서질 않아 망설였다. 그랬더니 승복이가 다시 내려와 내 짐을 지고 올랐다.

폭포 위로 올라서니 계곡은 더욱 좁아지고 양쪽 바위벽은 더욱 가파르게 치솟아 수직 장벽을 이룬다. 계곡엔 금새 떨어진 것 같은 깨어져 속살이 드러난 바위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었다. 우리는 계곡에 깔려있는 바위들을 골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타고 넘고 하면서 계곡을 올랐다. 계곡은 점점 더 좁아지면서 양쪽 바위벽들이 수직을 지나 오버행 형태를 이루면서 그 사이로 하늘이 좁게 길게 펼쳐지고 있었다. 요텔 소리 외치기도 겁이 났다. 만약 산울림에 아슬아슬하게 균형 상태에 있던 돌들이 계곡으로 떨어져 내린다면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3번째 폭포가 나타면서 골짜기는 왼쪽으로 꺾어졌다. 옆으로 크랙을 타고 올라 잡목지대를 헤치며 폭포위로 올라서니 계곡은 바위절벽으로 딱 막히고 바로 옆으로 커다란 바위굴이 나타났다. 놀라움과 동시에 겁이 더럭 났다. 무서운 짐승이나 혹은 간첩이라도 숨어있지 않나 해서다. 우리는 행동을 중지하고 숨을 죽이고 귀를 쫓긋 세운 채 그 곳을 한 동안 주시했다. 다행히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나는 짐을 벗어 두고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그리로 접근해보니 다행스럽게도 막힌 굴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췌하는 소리가 들려서 놀라 쳐다보니 하늘 위에서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계곡이 다시 우측으로 꺾기면서 거의 수직의 암벽으로 가로막히고 그 암벽위로 물이 쏟아져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단에서 튀기는 물방울들이 오후 햇빛을 받아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중에 실측해보니 50미터 높이가 되어 우리는 그 것을 50미터 폭이라 불렀다.

한참 동안 그 수려한 경치에 취해서 우리 입에서는 탄성이 그칠 줄 몰랐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오를 것인가가 걱정 되었다. 오를 코스를 찾기 위해 폭포 앞으로 다가서 보니 다행히도 오른 쪽으로 짐을 진 채로 클라이밍이 가능한 바위절벽이 펼쳐 있었다. 그러나 깨끗한 통바위가 아니라 구들장 같은 돌들이 떨어지기 쉽게 역층으로 쌓여 있었다.

나는 줄을 매고 단단히 확보를 보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어올랐다. 등반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무거운 짐과 낙석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 했고 힘이 들어 아주 신중을 기해야 했다. 왜냐하면 걸려있던지 붙어있는 구들장만한 돌들이 잘못 잡거나 디디거나 하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일은 후등자들의 위치를 낙석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낙석에 자일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돌들도 쓸모가 있었다. 힘주는 각도에 따라 돌이 떨어지지 않고 훌륭한 홀드로 또는 발 디딜 곳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등반선을 수직선이 아니라 반드시 사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연속등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낙석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우리의 등반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커다란 돌덩이들이 바위에 부딪치면서 튀고 깨지는 소리가 폭음을 내면서 계곡을 뒤 흔들고 바위 타는 냄새와 먼지가 좁은 협곡을 꼭 메웠다. 식은 땀 더운 땀 그리고 비지 땀까지 함뿍 흘리고야 우리 세 명 모두가 폭포 위에 올라 설 수가 있었다. 등에 무거운 기스링을 진채로. 폭포 위에 무사히 올라서니 모두 힘이 빠져버렸고 곧 날도 저물 기세였다. 험악한 바위절벽이 좁은 간격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계곡이라 모두 함께 비박할 자리는 고사하고 단 한 명이 누울 만한 자리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행동을 중지하고 각자 자기의 잠자리를 넉적한 돌들을 주워 모아 잘 깔아서 만들어야 했다. 각자 잠자리 터를 만들고 짐을 풀고 저녁준비를 하려 모닥불을 지필 즈음 어둠은 순식간에 좁은 계곡에 들어차버렸고 양쪽 바위절벽 틈새로 좁은 밤하늘이 계곡을 따라 길게 펼쳐지고 그 속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계곡 속은 이미 완전한 암흑 그 자체였고 그 속에서 활활 타는 모닥불만이 우리들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밝혀 주고 있었다. 충길이와 승복이는 벌써 짐을 잔뜩 먹은 표정이었다. 난 무서운 맹수들의 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아주 크게 지켰다. 그리고 모닥불에 함고를 걸어 저녁을 지어먹고 그리고 커피를 한 사발씩 마신 후 각자 자기의 비박자리를 찾아서 침낭을 펴고 그 속으로 누워처럼 기어 들어갔다. 온 몸은 침낭 속에서 포근하게 묻혀 있지만 천막 없는 비박자리라 얼굴만은 찬 공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얼굴 위로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면서 이어서 계곡 위 바위능선에서 몰아치는 밤바람이 마치 악마의 몸

부림치는 흐느킴처럼 들려왔다. 피곤함과 두려움에 우리 몸이 끈죽이 되면서 모두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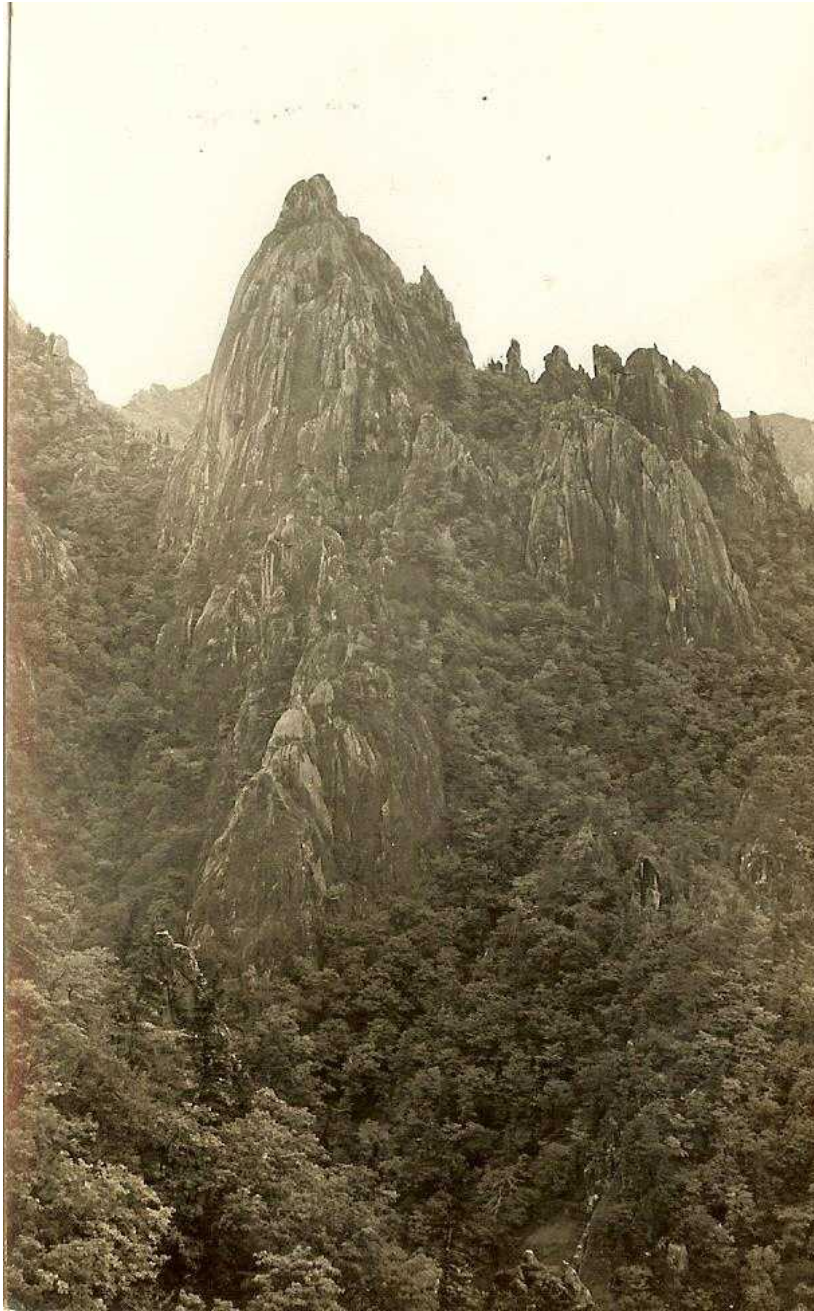
<셋째 날 5.30> 자존바위골 상단부 등반

다음날 아침은 쾌청이었다. 지난밤의 두려웠던 암흑과 바람소리는 흔적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우린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다. 좁은 바위 계곡은 이리저리로 돌면서 계속되었다. 걷는 것 보다는 손과 발의 모든 기능을 쓰면서 바위 덩어리들을 타고 오르내리는 행동의 연속이었다. 이쯤 되면 계곡등반도 분명 암벽등반의 한 형태라고 확신되었다. 얼마 후 계곡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듯싶더니 이번에는 아예 하늘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폭포가 우리 앞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극장의 대형화면처럼 우리의 시야를 꽉 채우면서 우리의 갈 길을 막아주고 있었다. 딱 중간쯤에서 2단으로 잘려 있었고 하늘 꼭대기에서 수직의 바위 절벽을 타고 2단계로 떨어지는 모습이 토왕성 폭포를 빼어 닮은 아주 수려한 폭포였다. 토왕성 폭포는 외설악의 가장자리에서 그것도 설악동 근처에 있어 이미 세인에게 떠들썩하게 널리 알려진 절세의 미폭이지만 이것은 외설악의 가장 깊은 곳에 이름도 없는 채 수줍게 숨어 있는 절세의 미폭으로서 우리 앞에 처음으로 그 수려한 모습을 들어 낸 것이다. 그것의 아름다움에 한참 동안 넋을 잃은 후에야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아직도 여전히 그 멋진 봉은 전혀 모습을 들어 내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폭포 절벽위에 올라서야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저기를 어떻게 오른단 말인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 더구나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다시 탐색하는 수밖에 없어 지도를 펼치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지점의 지도가 잘 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직에 가까운 100m 절벽이 등고선으로 표현되어 있지가 않았다. (뒤에 우리는 이 폭포를 오른 후에 100 m 폭포라 이름 지었다.) 어쨌든 계곡의 굴곡모양으로 우리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알아내어 그 암봉의 추정위치에 이르는 새로운 코스를 잡아내었다.

폭포 우측으로 난 아주 작고 얇은 실폭포를 타고 오르면 바로 그 바위 봉이 나올 것 같아 그리로 올랐다. 마침 물이 말라 있어 미끄럽지는 않았지만 대신 잡목들이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꽉 들어차있어 큰 짐을 메고 후비적대며 오르다 보면 짐이 나무에 걸려 넘어지고 균형 잡기 위해 엉겁결에 잡은 나무가 가시나무라서 비명을 지르고 땀에 젖은 온몸에 부서진 나무껍질들이 달라붙어 온몸은 따끔따끔하고 이젠 멋진 등반이 아니라 가시밭 고행 그 자체였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드디어 폭포 위로 올라섰다. 조그만 암능으로 올라서니 바로 그 멋진 봉이 갑자기 우리 코앞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멋진 암봉이 드디어 모습을 들어 낸 것이었다.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균계일학의 미인을 면발치에서 얼핏 한 번 보고 한 눈에 반해서 그 군중 속을 헤치며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찾아 낸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발치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 봉에 내 몸뚱이를 비벼보기 위해서. 자존바위골에 들어선지 만 2일 후였다. 그 것은 분명 만 2일간의 어렵고 힘든 또 다른 형태의 암벽 등반인 계곡등반 이었다.

<넷째 날 1967.5.31> 범봉 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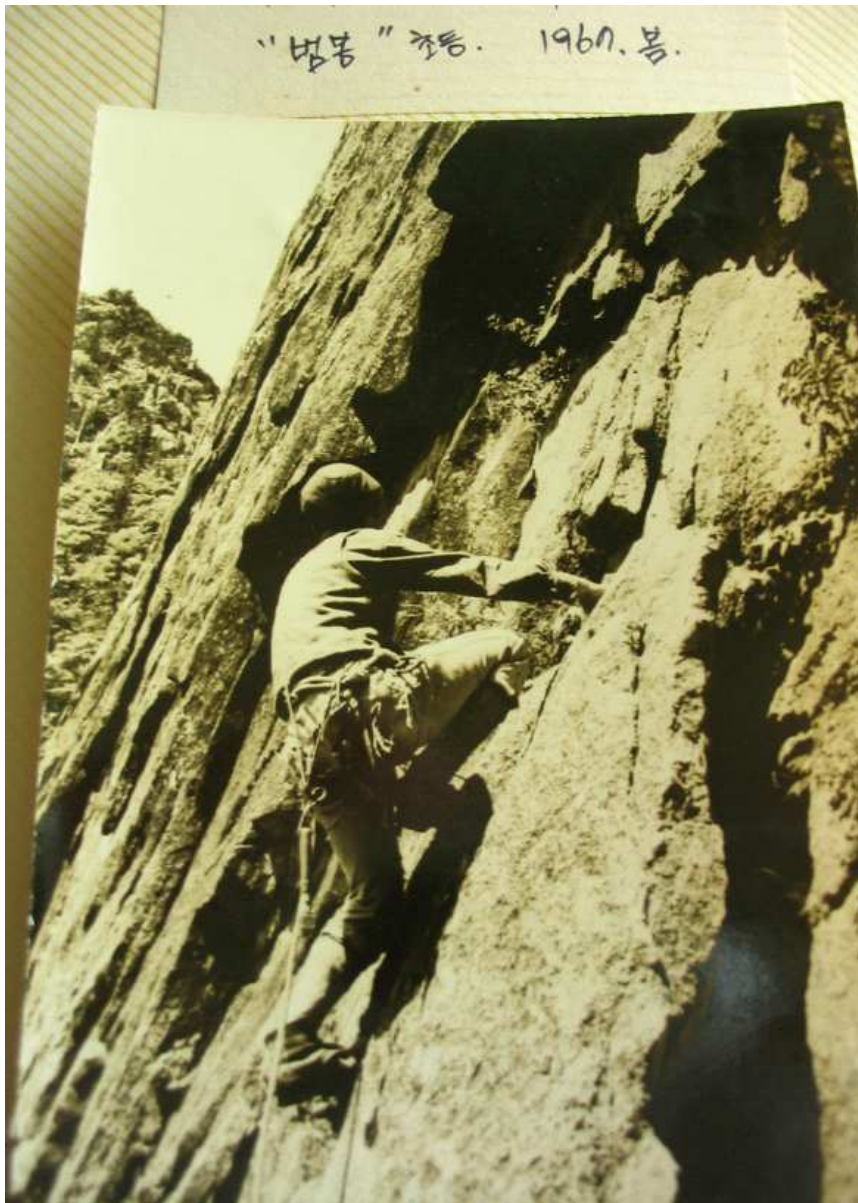


그 바위 봉 바로 아래 계곡에서 비박하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암벽장비만을 챙겨 가지고 나를 듯이 올라 그 바위 봉 시작점에 섰다. 날씨가 쾌청이고 아침 햇살이 시선방향이라 봉우리 전체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 전체모습은 마치 인수봉처럼 대포알같이 생겼고 서남쪽 전면은 표면이 매끄러워 등반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오른쪽 즉 동남측면으로는 남면과 동면이 이어지는 모서리로서 여러 개의 작은 바위봉과 바위덩어리가 겹쳐 쌓인 모양으로 작고 가파른 암능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기엔 크랙과 변형침니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한 군데군데 잡고 디딜만한 바위 턱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 등반이 무난할 것 같았다. 나는 그리로 방향을 잡고 올라서 본격적인 암벽등반 시작점으로 접근했다.

<범봉 발치부터 바위 틈새마다 피어 있는 에델바이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때까지 노래 가사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등산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신비의 꽃 에델바이스가 한 두 개가 아니라 온통 군락을 이루며 피어있었다. 우리 이름으로 솜다리라고 불리는 이 에델바이스는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설악산 화채봉 근처에서만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귀한 것이 그 바위 봉 발 밑에서 시작하여 그 바위 봉에 난 모든 틈새들을 타고 오르면서 눈부신 빛 깔로 줄을 지어 피어 있었다.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이었다. 설악산 신령님께서 자신의 봉우리 중 제일 아름답고 고고한 처녀봉에 아주 귀한 꽃으로 단장까지 시켜놓고 신랑감으로 나를 점지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다.



<범봉 스타트를 하는 필자: 올라야 할 바위 틈새마다 에텔바이스가 딱 들어차 눈부시게 피어있다>

인간의 손때 발때를 거부한 채 태고의 순수를 그대로 간직하고 더구나 아름답고 고상한 에텔바이스로 곱게 단장까지 하고 있는 처녀봉의 처녀바위를 오르는 순간 내 마음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가득 했었다. 안타깝게도 내가 발 디딜 곳과 잡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뽑아내야 했었다. 암질은 예측대로 장년기의 화강암으로 선인봉이나 인수봉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암벽등반에 이상적 이었다. 더구나 모든 면이 처녀바위라서 까칠했기 때문에 마찰력은 더 없이 좋은 상태였다. 반면에 크랙 속에 쳐 박은 내 손은 처녀바위의 까칠함 때문에 금방 피부성이기 되어버렸다. 몇 백 만년 동안 간직해온 처녀성의 날카로움이기애 아프면서도 쾌감스러웠다.

내 앞에는 길이 전혀 없는 원시상태의 바위절벽이 광활하게 하늘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자유공간이었다. 따라서 내가 올라가는 궤적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구간마다 확보점을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되도록 시야가 트이고 몸이 허공으로 노출되는 멋진 등반선을 찾아서 올랐다. 그러나 등반선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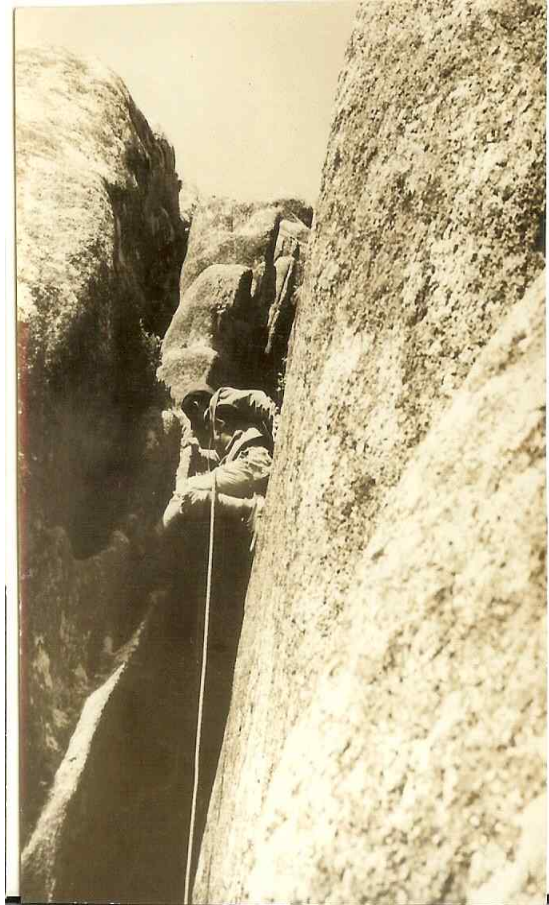
정상으로서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확인하느라 애를 썼다. 약 네 다섯 시간 후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다. 때는 1967년 5월 30일이었다. 자른바위골로 들어서서 바위계곡과 절벽을 타고 오르면서 2번의 비박을 하고 3일 켜였다. 정상은 온돌 시커먼 서귀버섯에 뒤 덮여있었다. 그런데 꼭짓점을 이루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한 마리의 호랑이가 북쪽을 향해서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는 동쪽으로 돌려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호랑이라 그건 바로 우리 땅 한반도의 터줏대감이 아니든가 그래서 뒤에 나는 이 봉을 “범봉”이라 이름 지었고 지금은 지도에까지 그렇게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시 자른바위골을 표범골로 작명하고 등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었다. 도봉산 선인봉의 표범길과 관련짓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범봉은 표범길과 관계없이 그 자체의 형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지어진 이름이다 보니 골짜기 이름도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명명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당초의 내 의도를 포기하고 설악동 원주민들이 지어 부친 이름 즉 자른바위골을 따르기로 해서 오늘에 이른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초등의 환희와 더불어 바로 그 위에서 나는 사방으로 펼쳐지는 외설악의 진정한 모습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바로 남쪽으로는 손을 뻗치면 닿을만한 거리에 공용능의 사나운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떼 지어서 나의 시야를 꽉 채우면서 서북쪽으로 길게 뻗쳐있었다. 나는 마치 아이맥스 극장에서 초대형 화면을 통해서 펼쳐지는 파노라마처럼 바로 나의 코앞에 펼쳐지는 공용능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공용능을 따라 남동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면 대청봉의 거대한 덩치가 하늘을 가리고 고개를 더 돌리면 멀리 동해바다가 펼쳐졌다. 다시 고개를 돌려 공용능을 따라 서북쪽으로 훑터가면 마등령과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마등령 능선이 길게 동쪽으로 뻗어 내리고 그 너머로 울산바위의 은빛 장벽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성곽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화채봉 능선이 하늘과 땅 사이의 지평선을 이루면서 나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장성으로 둘러싸인 외설악 그 안으로 제약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바위 봉들이 마치 백만대군의 기치창검처럼 뻗어있고 마침 오후 늦은 햇살을 받아 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외설악 전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보는 높이와 위치가 적절해야하고 그리고 햇빛 방향이 시선과 일치해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곳이 바로 범봉 정상이었다. 이렇게 외설악의 전경을 볼만한 곳이 몇 곳이 있지만 높이와 위치가 맞으면 햇빛 방향이 안 맞고 햇빛 방향이 맞으면 높이나 위치가 안 맞아 그 동안 외설악 전경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높이와 위치로 볼 때 울산바위 정상이나 권금성 정상에서도 외설악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는 기껏해야 겨우 외설악의 실루엣 정도를 보는 것이 전부이다. 왜냐하면 그 봉우리에 오르면 오후 늦은 시간이 되고 따라서 햇빛이 좋아도 역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치나 햇빛 방향으로 볼 때 소청봉에서도 외설악 전경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높이차이가 너무 크고 위치가 좀 멀기 때문에 원경이 되어 잘 감상할 수가 없게 된다.

어찌면 범봉이 외설악 전경을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명당자리였기에 내가 그 토록 애써 찾아 올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 동안 나는 아름답고 신비한 외설악 전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눈의 초점을 조금 당겨서 범봉 아래로 맞추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범봉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의 암능들이 형형색색 다른 모습으로 어떤 것은 마등령쪽으로 또 어떤 것은 비선대쪽으로 뻗어 내리고 있었다. 그 것들은 정말로 완벽한 암능으로서 어떤 것은 칼날 같은 모습의 나이프 릿지였다. 그 때까지 나는 그런 나이프 릿지를 이루는 암능은 우리 땅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왔었는데 그런 칼날 암능들을 바로 우리의 설악에서 찾아내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이젠 내게도 멋진 칼날암능등반이 그림의 떡만은 아니게 된 것이었다. 그걸 타고 등반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을 거니는 하늘길로서 그야말로 천상의 신선 바로 그 기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내 속에서 강한 등반 욕구가 일었다. 바로 이것이 설악산 암능등반의 태풍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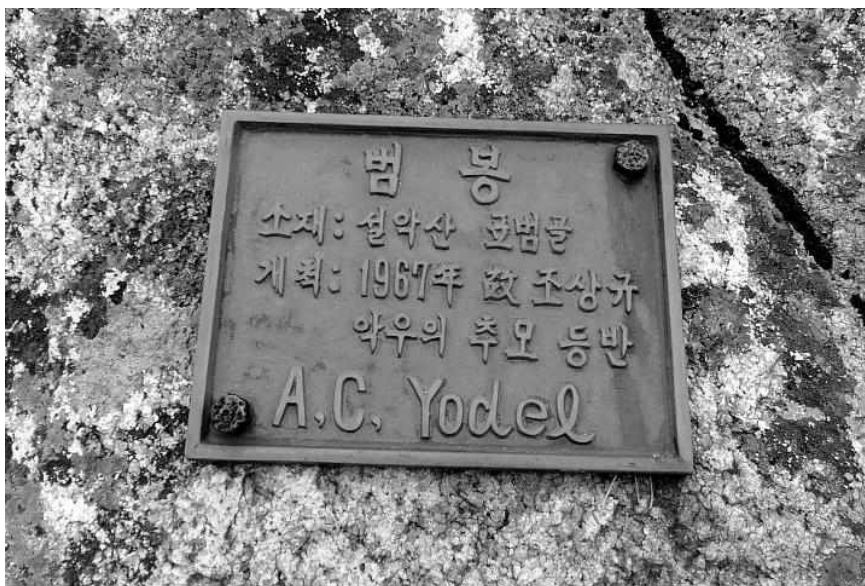
그 후 나는 외설악 한가운데 숨어있는 그 멋지고 오묘하며 깨끗한 암능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암능을 타고 오르는 것을 즐기면서 몇 해를 보냈다. 바로 석주길 암능, 칠형제봉 암능, 범봉연봉, 동원암 암능 등이 그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보름달 밤에 달 빛 만으로 밤새 오르기도 했고 때로는 투명한 태양 빛 속에서 발가벗은 알몸뚱이에 자일을 매고 하로 종일 오르기도 했고 때로는 암능 위에서 비박을 하면서 설악의 요정들과 밤을 회롱하기도 했었다.



< 범봉을 오르는 선등자 백인섭 >



<범봉 정상 꼭짓점에서 요델 기를 휘날리는 백인섭.>



<바로 다음해에 범봉정상에 설치한 동판>



<범봉에서 내려다보는 석주길 전경>

<등반문화적 고찰>

- **범봉등반의 거벽성** : 범봉 등반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지만 범봉 발치까지의 접근을 위한 2일간의 등반도 암벽등반 수준이었고 1일간의 철수 또한 암벽길 하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4일간에 걸친 암벽등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시작에서 끝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비박을 해 가면서. 이렇게 보면 요즘의 세계적 거대암벽등반과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설악산 개척시대를 열다**: 당시 설악산 약초꾼들이나 사냥꾼들에게 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자근바위굴을 탐험해서 멋진 범봉을 찾아내서 개척 초등한 나의 등반기록은 우리 땅의 설악에서도 개척이나 초등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 사건이라고 보아진다. 도봉산에서의 양지길, 허리길 그리고 표범길이 이 땅의 산꾼들에게 개척 가능성을 보임으로서 도봉산과 인수봉에서 개척시대가 열린 것처럼 설악에서도 70년대 중후반에 개척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 **등반의 불확실성** :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1200분의 1지도까지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당시 2만5천분의 1 지도에 비하면 대충 20배의 정확도이다. 이는 당시 내가 시력 0.1 정도 즉 거의 장님시력으로 설악산지형을 탐색해서 범봉을 찾아내고 거기에 접근한 것이고 지금은 2.0 시력으로 설악산지형을 탐색하는 격이다. 더구나 그토록 정확한 지도 속에서 불과 몇 10미터의 오차 범위로 현재의 위치까지 잡아준다. 그것도 손바닥만 한 들고 다니는 조그만 장비가 위

성과 통신까지 하면서. 당시와 비교해보면 거의 신의 눈이라고 할 정도이다. 정확하고 편리해서 좋기는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모험성과 지력성이 상실되고 만다. 등반이 인간을 매혹하는 바로 그 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그런 문명의 이기가 어떤 이유로든 사용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닥치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바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문명의 이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특히 험한 미지의 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장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대등반의 특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등반의 모험성 :

당시 범봉등반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험성이 매우 큰 등반이었다. 접근자체부터 형상의 험준함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성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모험성이 극대화 되었다. 또한 지도의 불확실성으로 해서 그 도가 더해졌다. 그러나 모험은 언제나 나의 몸과 정신에서 최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나는 모험을 매우 좋아했고 따라서 바로 그 모험성이 내게 강한 등반동기가 된 것이다.

- 범봉이라는 명칭:

범봉은 내가 찾기 전에는 미지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없었다. 봉우리 이름은 보통 발견자 또는 초등자가 지어 부치게 마련이다.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발견해서 그 높이를 측정해낸 사람이름을 따서 부쳐진 이름이다. 초등자인 힐러리 경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발견자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초등자의 이름을 따서 힐러리 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봉의 경우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발견자와 초등자가 동일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그 명칭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지금도 여전하다. 바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설악산에 설치한 안내판이다. 공용능 망경대에 아주 크고 단단하게 설치되어있는 안내판에 범봉의 위치와 더불어 이런 설명이 쓰여 있다. 범봉이라는 명칭은 아마도 범봉이 망망대해를 향해하는 범선처럼 보여서 범봉이라 이름이 지어진 듯하다고. 제법 그럴듯한 상상력이다. 그러나 시 한 수가 아닌 안내문일진대는 그런 개인의 추측보다는 진실을 사실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 범봉 초등자에 대한 오류 정정

그 동안 나의 블로그에 남긴 산발적인 등반기록 중에는 1967년 범봉 초등 시 내가 송준호와 오세진을 동반한 것으로 잘못 표기된 문서들이 존재한다. 이는 내가 범봉 초등과 그 다음 해에 이어진 석주길 초등을 오랜 세월로 인해서 잠시 혼돈해서 생긴 오류였다. 따라서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

범봉 초등자: 백인섭, 유충길, 장승복.